

배경으로서의 건축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 조경빈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대표

### 개요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376-3(남산동)
용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대지면적	428.16m <sup>2</sup>
건축면적	142.20m <sup>2</sup>
연면적	227.00m <sup>2</sup>
규모	지상 2층
건폐율	33.21%
용적률	53.02%
외장마감재	노출콘크리트(살수치핑, 문양거푸집)
내부마감재	콘크리트 면처리, 외단열시스템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제이더블유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설계담당	조경빈
디자인팀	지성배, 하규석, 이아름, 김민규, 장예림
시공	서우건축 주식회사
기계·전기설계	주식회사 원이엔씨
완공연도	2022



도로변에 접한 앞마당



집들은 풍화되고 가로수는 그 세월을 기억하는 듯  
높게 솟아 자연스럽게 어울려 마을의 배경이 되었다.  
주변의 개발과 다르게 마을은 느리게 변화하였고,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을 지키고 싶었는지 모른다.  
건축으로 채우기보다는 최소한의 건축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외부 공간의 구획으로 주변 자연을 마당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었다.











본관 뒷마당





01F  
2F



01F  
2F



01F  
2F

상 1층 주민공동시설  
하 2층 주민공동시설





© 건축  
원경



© 건축  
원경

상 전통 담장을 재해석한 콘크리트 캐노피  
하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실





0170



0170

상 단순성과 다양함이 공존하는 건축  
하 담장과 박공지붕의 참고



정제된 시골 마을에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름다운 건축물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이용자 간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건축물은 그간에 배경이 된다.



© 2017

마을의 배경으로 어우러진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



## 프로젝트의 시작점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장이 정체된 지방 시골 마을에 새로운 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고압선이 지나는 마을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각각의 마을들은 그 보상금으로 개별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어떤 마을은 가구별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고, 또 어떤 마을은 창고시설을 신축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주민공동시설을 짓게 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였다. 결론은 마을의 노인당 자리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짓되, 보상금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었기에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익이 다시 마을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기로 하였다.

우리는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이 기존 노인당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과 함께, 건축물로 인해 외부의 사람이 마을로 유입되는 과제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행히 마을의 한 협동조합이 인근에서 카페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새로 신축될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마을에서 재배한 밀·보리·매실 등으로 만든 빵·과실청·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공간과 음식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정체된 시골 마을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름다운 건축물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이용자 간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건축물은 그간에 배경이 된다.

## 경계에서의 건축과 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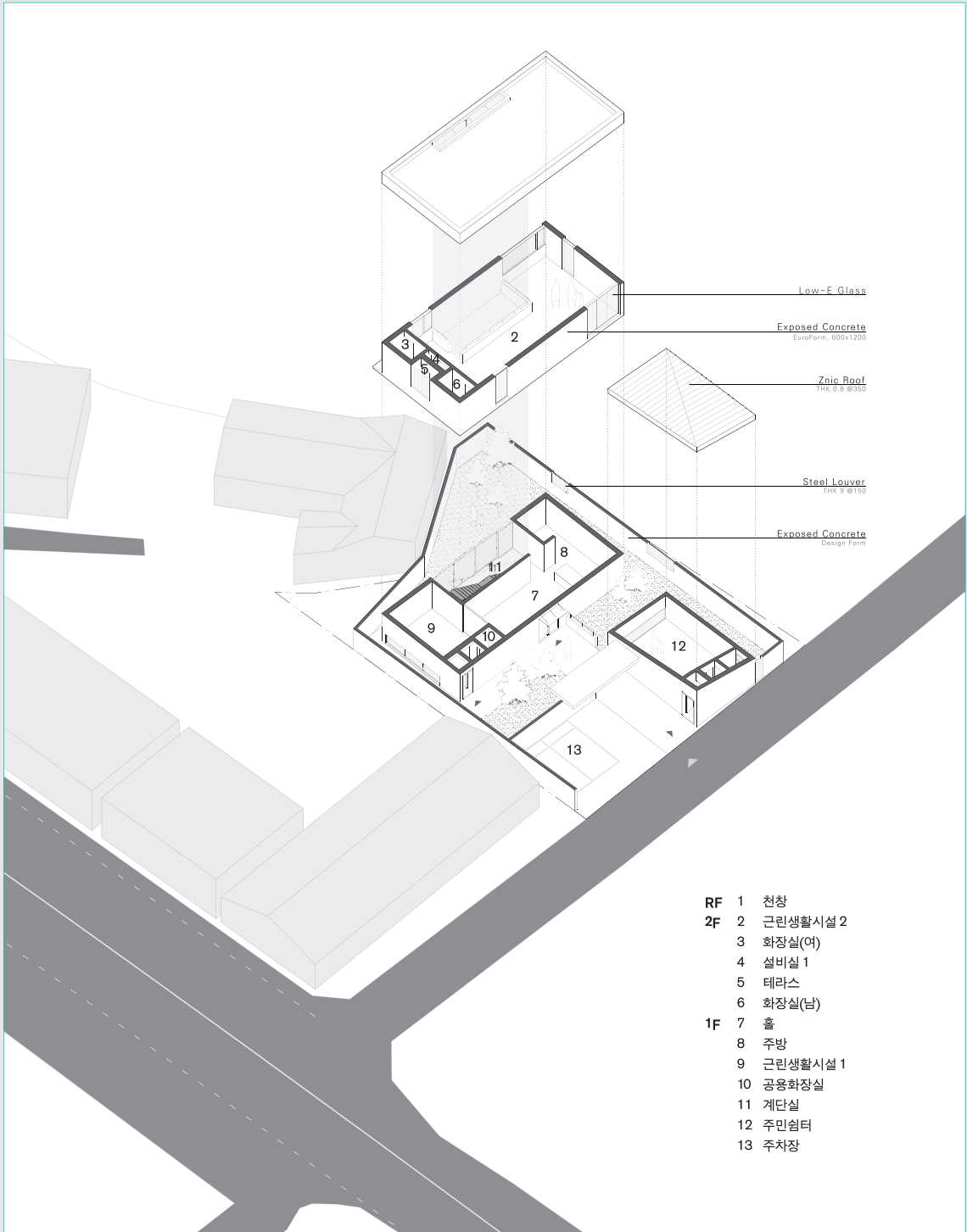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 동네는 평립천이 평야지대를 적시며 황룡강과 합류하는 작은 마을이다. 집들은 풍화되고 가로수는 그 세월을 기억하는 듯 높게 솟아 자연스럽게 어울려 마을의 배경이 되었다. 주변의 개발과 다르게 마을은 느리게 변화하였고,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을 지키고 싶었는지 모른다.

©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상 도로변에 접한 앞마당  
하 본관동 진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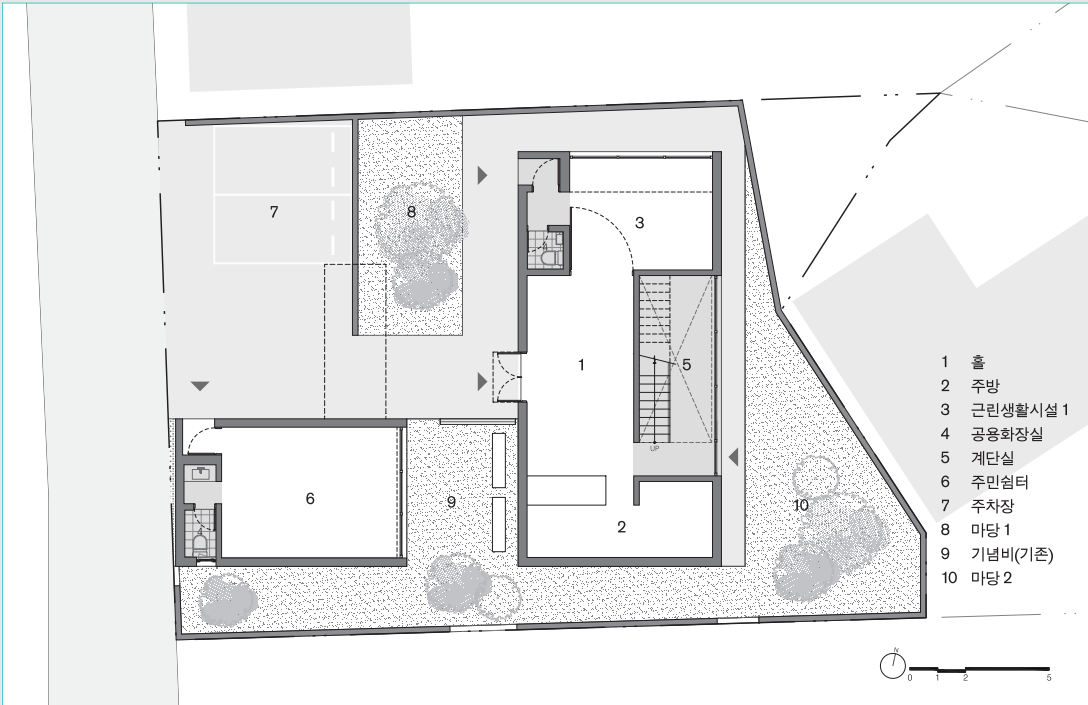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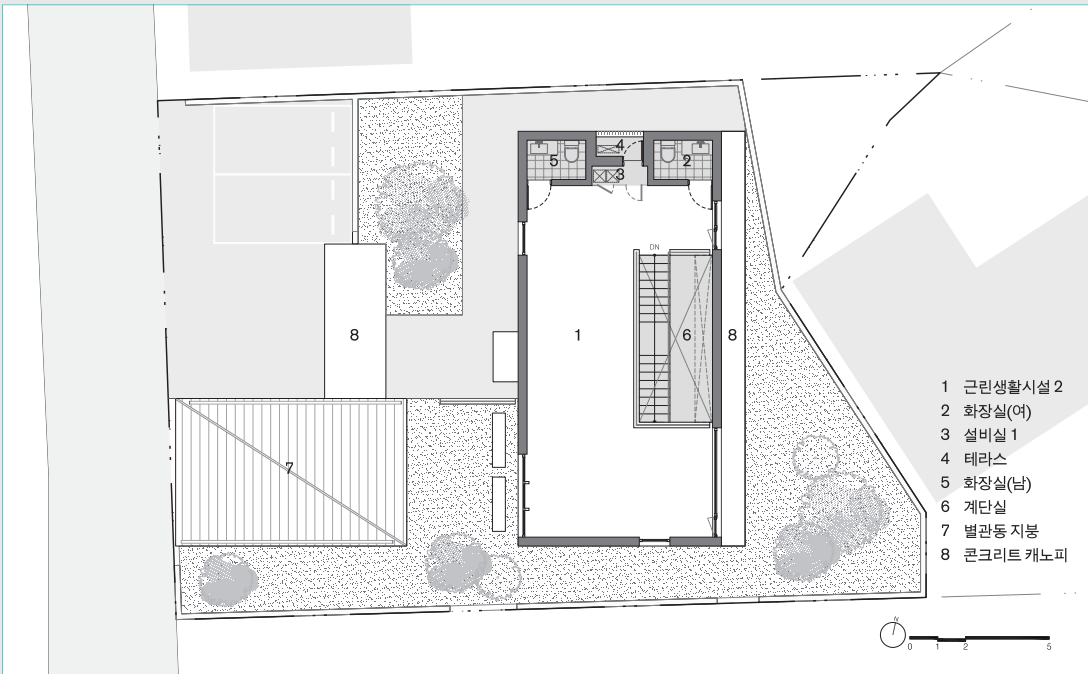
- RF 1 천창
- 2F 2 근린생활시설 2
- 3 화장실(여)
- 4 설비실 1
- 5 테라스
- 6 화장실(남)
- 1F 7 홀
- 8 주방
- 9 근린생활시설 1
- 10 공용화장실
- 11 계단실
- 12 주민센터
- 13 주차장

분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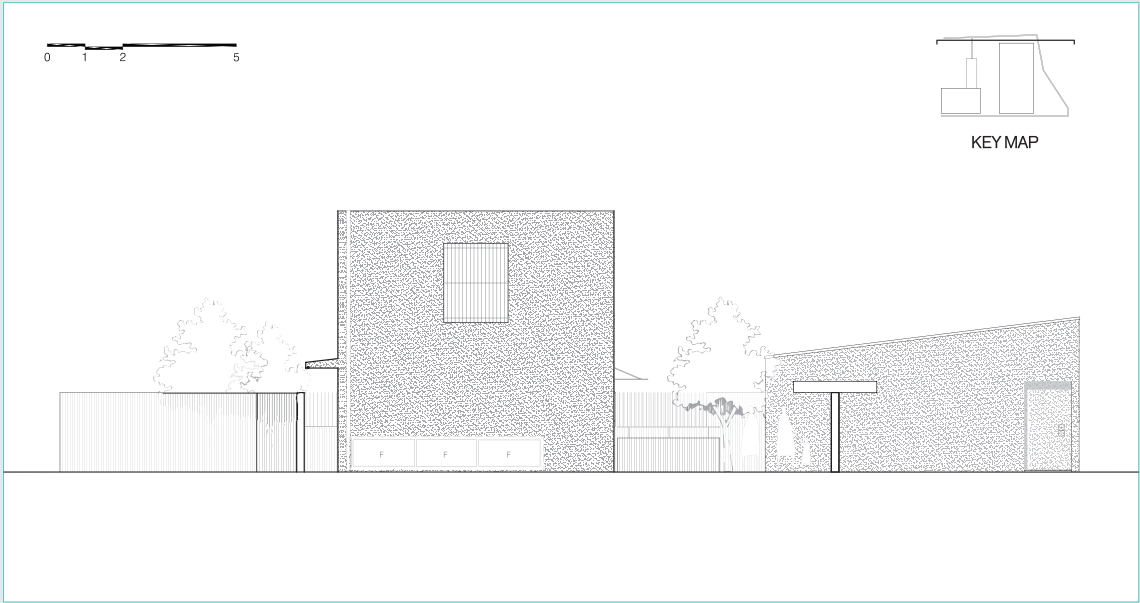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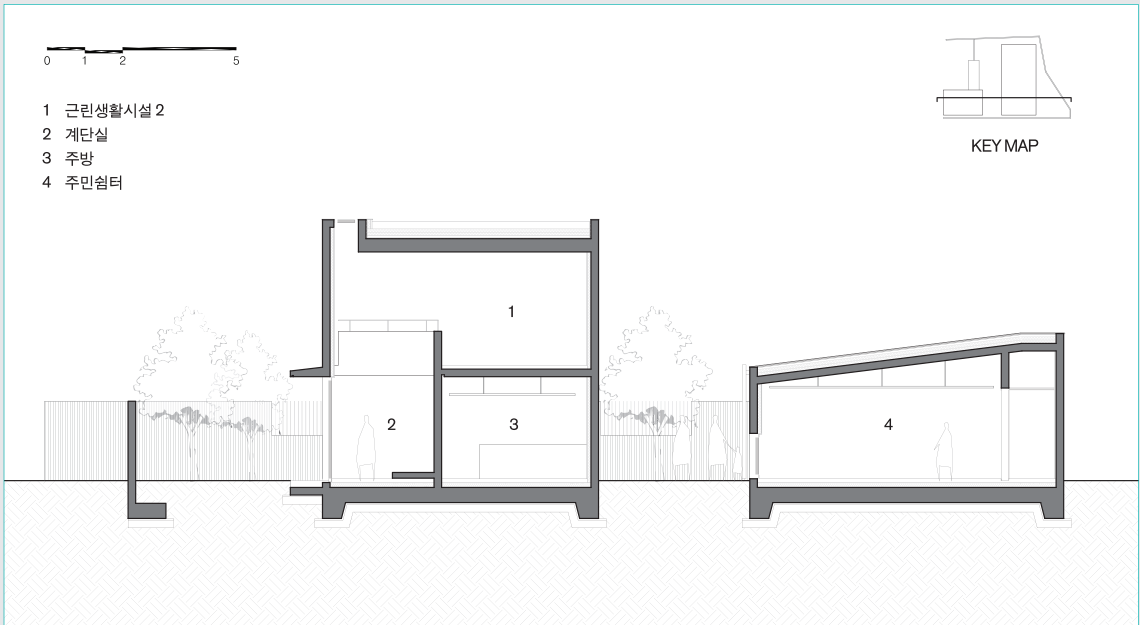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좌측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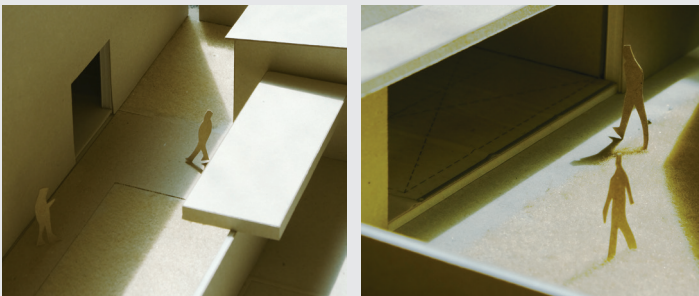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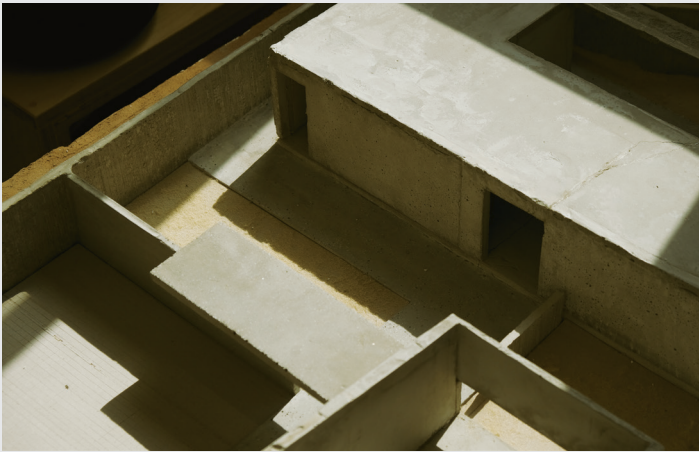


집터 주변은 너른 평야가 사철의 계절을 물들이고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일 건축은 단순할 필요가 있었다. 건축으로 채우기보다는 최소한의 건축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외부 공간의 구획으로 주변 자연을 마당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었다.

### 시골 마을과 새로운 것: 다양한 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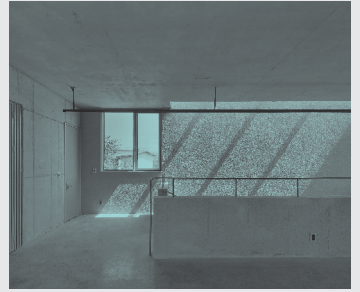
콘크리트라는 단순한 재료로 마을의 배경이 되고자 하였다. 콘크리트 표면의 다양한 가공은 해의 고도와 계절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보여준다. 인접한 오래된 박공지붕의 창고는 계획된 담장을 치맛단 삼은 신·구가 그리 어색하지 않다. 외부 시선이 차단될 높이의 치핑 담장 안마당은 공간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주었으며 전통건축의 살림집처럼 따스하다. 아울러 본동 뒤편 후정의 수선한 오래된 담장 뒤 낮은 처마선과 문양거푸집의 담장이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우리는 건축물의 다양한 재료가 오래된 마을을 흔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건축 구축을 위한 재료는 단순하되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 필동2가이키텍츠 건축사무소



모형사진

© 노경  
안주경



상 1층 주민공동시설  
중 2층 주민공동시설  
하 담장과 박공지붕의 창고



상 전통 담장을 재해석한 콘크리트 캐노피  
 중 본관 뒷마당  
 하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실

### 구획: 마을, 담장, 마당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은 마을의 노인당이 있던 자리에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건축되었으며, 주민을 위한 시설과 정체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건축은 구획된 담장과 건축물 간 배치로 다양한 외부 공간의 형성이 가능하였다.

도로변에 접한 부속동과 본동은 주변의 평야에 유연하며, 담장 위 없힌 콘크리트 캐노피는 진출입구의 경계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도심지 건축의 경계만을 표시하려는 수단으로 전략한 담장이 회귀하여 건축물을 감싸며 외부와 선을 긋는 한국 전통건축의 담장을 다시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 경계: 주민공동시설과 수익 공간

우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수익이 가능한 공간의 경계를 경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획은 하되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하였고, 공간을 확장해 실내외로 규정 짓기보다는 건축물의 내외 경계를 허무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물은 본동과 부속동 사이에 구획된 담장에 의해 3개의 다양한 마당이 계획되었고, 그 마당과 연계된 실내 공간은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작업이 가능하였으며 공간은 더욱 확장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